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武周新字 研究*

A Study on the New Characters of Muzu(武周新字) Used in Mugujenggwangdaedaranigyong(無垢淨光大陀羅尼經)

柳 富 鉉(Yoo Boo-Hyun)**

〈目 次〉

- | | |
|-------------|--------------------------------|
| I. 緒言 | III.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武周新字의 性格 |
| II. 武周新字 | IV. 結言 |
| 1. 則天武后의 生涯 | 參考文獻 |
| 2. 武周新字 | |

초 록

본고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武周新字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무주신자와 이를 제정한 則天武后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武后時代에 적용된 무주신자의 用例를 고찰하여, 本經에 사용된 例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먼저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을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의 자형과 비교를 해본 결과, “初·證·授”字의 新字들은 상당한 차이가 났다. 또한 新字의 組合原理와 意味上에서 비교해 본 결과 더욱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新字使用의 적용례를 비교해 본 결과 역시 비교가 안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本經에 사용된 新字와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 사이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 이와 같이 자형과 사용례에서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 無垢淨光大陀羅尼經, 武周新字, 則天武后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new characters of Muzu(武周新字) and it's producer, Chukchunmuhu (則天武后), to find out the features of the new characters of Muzu(武周) by looking through the preresearches on them, and analysis it from comparing the usages of the new character of Muzu(武周) in the age of Muzu(武周) and in this book.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e comparing of the letter forms written in this book and in the age of Muzu(武周) are like this: the form of the letter '地' is almost similar, the form of the letters “初·證·授” is somewhat different but the mixing principles and the meanings are more different. And next, this study shows the usages of the letters, which shows also remarkable differences. So this study concludes that such differences showing in these two books are on the bases of the gaps in time and space between them.

Key Words : Chukchunmuhu, Mugujenggwangdaedaranigyong, new characters of Muzu

* 이 論文은 2000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研究費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助教授. boohyum@road.daejin.ac.kr

I. 緒 言

1966년 慶州 佛國寺 釋迦塔에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經의 刊年과 刊行地에 대해서 先學들의 연구가 진행된 바, 대략 751년경 신라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 定說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¹⁾ 그러나 최근에는 704년 중국의 洛陽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²⁾과 706년 이전 신라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³⁾이 대두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⁴⁾

그런데 그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經에 나타나는 이른바 武周新字⁵⁾이다. 무주신자는 唐의 則天武后가 執權했을 때 제정된 17字의 文字로 측천무후 집권기간 중 689년부터 704년까지 15년 동안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무주신자가 本經에는 이 17字 가운데 4字(地·初·證·授字에 해당되는 무주신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時限性을 가진 무주신자가 本經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학자들간에 本經이 751년경 혹은 706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주장하거나, 704년 중국의 洛陽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論據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무주신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고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臆見으로 생각되는 점도 있는 것이다. 사실 무주신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本經에 보이는 무주신자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교적 설득력 있는 논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의 성격이 올바르게 파악된다면 本經의 刊年과 刊行地를 보다 개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먼저 무주신자와 이를 제정한 측천무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武后時代에 적용된 무주신자의 用例를 고찰하고, 이것을 本經에 사용된 例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의 성격은 本經의 간행시기를 구명하는데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

- 1)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제4호(1968. 5), p.185.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汎友社, 1990), p.35.
- 2) 潘吉星, “韓國新發現의 印本陀羅尼經與中國武周時的雕版印刷物”, 『中國印刷史學術研討會文集』(印刷工業出版社, 1996), p. 192.
- 3)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4輯(書誌學會, 1997), p. 73.
- 4)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의 특집으로 간행된 『東方學志』 제106집(1999. 12)을 참조바람.
- 5) 이 ‘武周新字’는 학자간에 따라 ‘武后改字’, ‘武后制字’, ‘則天文字’, ‘武周改字’, ‘武周制字’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新字’ 또한 ‘改字’, ‘制字’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6) 필자는 本經의 간행시기를 구명하는 단서를 마련하기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武周新字

本經에 사용된 武周新字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여기서는 먼저 무주신자를 제정한 則天武后에 대해서는 그의 生涯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무주신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측천무후의 생애에 대한 고찰은 이미 先行의 연구가 진행된 바,⁷⁾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의 생애를 年表 형식으로 정리하여 대신하고자 한다.

1. 則天武后의 生涯

623年(武德6년) 武則天 1세 : 武士護의 二女로서 長安에서 태어났다.

628年(貞觀2년) 6세 : 武士護이 利州都督으로 부임하고 則天의 母女도 함께 따라 간다.

635年(貞觀9년) 13세 : 武士護이 荊州都督으로서 임지에서 病死(59세)하고, 則天은 長安으로 돌아 왔다. 이 해에 唐高祖도 죽었다.

636年(貞觀10년) 14세 : 則天이 應召로 入宮하여 才人이 되었다.

643年(貞觀17년) 21세 : 皇子 李治(唐高宗)가 太子가 되었다.

647年(貞觀21년) 25세 : 太宗이 則天을 太子 李治에게 내려주었다(據高宗之入后詔書).

649年(貞觀23년) 27세 : 5월에 太宗이 죽고 則天은 다른 궁녀와 함께 長安 感業寺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이 해에 李治는 帝位를 이어 받아 唐朝의 3대 황제가 되었다.

650年(永徽元年) 28세 : 高宗은 王氏를 세워 皇后로 삼았다.

652年(永徽3년) 30세 : 則天이 다시 入宮하여 昭儀에 봉해졌다. 이 해 겨울에 아들 李弘을 낳았다.

655年(永徽6년) 33세 : 10월 高宗이 王皇后를 폐하고 武昭儀를 皇后로 삼았다. 內外命婦가 入宮하여 武皇后를 알현하였다. 皇后에게 조회하는 것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11월에 次子 李賢을 낳았다.

656年(顯慶元年) 34세 : 長子 李弘을 태자로 삼았다. 顯慶부터 武后가 “決百司奏事”했다.

657年(顯慶2년) 35세 : 12월에 洛陽을 東都로 선포하였다.

662年(龍朔2년) 40세 : 皇子 李旦(睿宗)을 낳았다.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研究”, 東方學志 제106집(1999. 12).

柳富鉉, “遼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研究”, 『書誌學研究』 20집(2000. 12 게재예정)

7) 羅元貞, “武則天歷史簡表”, 『武則天集』.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7.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4호)

- 674年(上元元年) 52세 : 문무백관 등이 高宗을 天皇으로 武后를 天后로 칭했다.
- 675年(上元2년) 53세 : 3월에 高宗이 武后로 하여금 出面하고 정식으로 국정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宰相 郝處俊이 諫하여 중지시켰다. 武后는 여전히 幕後에서 執政을 하였다. 4월에 太子 李弘이 병으로 죽으니(24세), 李賢를 태자로 삼았다.
- 677年(儀鳳2년) 55세 : 8월 皇子 李顯의 이름을 哲로 改名했다.
- 680年(永隆元年) 58세 : 8월에 太子 賢을 폐하고 皇子 李哲을 太子로 삼았다.
- 682年(永淳元年) 60세 : 2월에 例를 깨고 皇孫 重照를 皇太孫으로 삼았다.
- 683年(弘道元年) 61세 : 12월에 高宗이 東都에서 죽고(56세), 太子 李哲(中宗)이 繼位하였다.
- 684年(嗣聖元年·文明元年) 62세 : 皇太后가 되었다. 2월에 中宗이 不肖하다 하여 廢하여 廬陵王으로 삼고, 皇子 李旦을 황제(睿宗)로 삼았다. 武皇太后가 공개적으로 조정에 나가 집정하였다. 東都를 神都로 고쳤다. 8월에 高宗을 乾陵에 장사지냈다.
- 688年(垂拱4年) 66세 : 4월에 武承嗣가 瑞石을 위조하여 바쳤다. 5월에 群臣이 尊號 '聖母神皇'을 올렸다.
- 689年(永昌元年·載初元年) 67세 : 11월에 周正을 改用하여 11월을 正月로 하고 載初로 改元하였다. 鳳閣侍郎河東宗秦客(則天의 從父姊의 子)이 嵬 등 12字의 新字를 바치니 천하에 頒行하였다.
- 690年(天授元年) 68세 : 女皇이 되었다. 2월에 僧 法明 등이 《大雲經》을 편성하였는데 則天이 바로 彌勒佛의 降生이라고 하였다. 9월에 國號를 周로 바꾸고, 天授로 改元하고, '聖神皇帝'로 칭했다(황제 生時에 尊號를 붙이는 것은 則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693年(長壽2년) 71세 : 則天이 '金輪聖神皇帝'의 존호를 더했다.
- 694年(延載元年) 72세 : 則天이 다시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의 존호를 더했다.
- 695年(證聖元年·天冊萬歲元年) 73세 : 2월에 '慈氏越古'의 존호를 삭제하였다. 4월에 높이가 500尺인 '大周萬頌德天樞'를 鑄成하여 宮城 端門 밖에 세웠다. 9월에 '天冊金輪聖神皇帝'의 존호를 더하고 天冊萬歲로 改元했다.
- 698年(聖曆元年) 71세 : 3월에 廬陵王을 房州에서 神都로 돌아오게 하였다. 9월에 廬陵王(李顯)을 태자로 선포했다.
- 700年(久視元年) 78세 : 5월에 天冊·金輪·聖神 등의 존호를 삭제했다. 10월에 周正을 폐지하고 다시 夏正을 사용하여 明年 寅月을 歲首로 삼았다(垂拱4년(688)부터 周曆을 고쳐 쓴 이래 이 해에 이르기까지 本表 每年의 正月은 실제로는 모두 夏曆의 11월이다).
- 701年(長安元年) 79세 : 女皇이 神都에서 長安으로 돌아와서 年號를 長安으로 改元하였다.
- 703年(長安3년) 81세 : 女皇이 봄·여름·가을을 長安에서 보내고 10월에 神都로 돌아왔다.
- 704年(長安4년) 82세 : 女皇이 연로하고 병이 많아 4월에서 7월까지 興泰宮에서 요양하였

다.

705年(神龍元年) 83세 : 元旦에 神龍으로 改元하였다. 正月에 張柬之 등이 太子를 받들고 政變을 일으켰다. 女皇은 臥病 중에 太子(中宗 李顯)에게 傳位를 하였다. 中宗이 登位하여 女皇에게 '則天大聖皇帝'의 존호를 올렸다. 이때부터 '則天'이란 칭호가 생겼다. '則'의 義는 效法과 같고, 意는 效法上天爲善之大聖皇帝이다. 11월에 女皇이 上陽宮의 仙居殿에서 83세의 나이로 病死했다. 그 후 乾陵에 장사지내었다. 中宗이 비록 登位하여 復唐하였지만 神龍 年號를 그대로 사용하고 改元하지 않았으며, 中興을 일컫는 것을 불허하여 '聖母神皇'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었다.

2. 武周新字

1) 武周新字의 字數와 制定時期

武周新字의 字數는 문헌의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新唐書』에는 「載初中 又享萬象神宮…作壘…有十二文 太后自名壘 改詔書爲制」라 하였고, 『資治通鑑』에는 「鳳閣侍郎東宗秦客 改造天地等十二字以獻 丁亥行之 太后自名壘 改詔曰制」라 하여 똑같이 12字로 되어 있다. 清代 紀昀 등이 엮은 『續通志』 권71 「后妃傳·唐志」에도 武則天이 12字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어떤 史書에는 무측천이 만든 新字가 14字(『資治通鑑』 胡三省注), 혹은 16字(『集韻』), 혹은 18字(『通志』 권35 《六書(五)·志》), 혹은 19字(『宣和書譜』 권1) 심지어는 겨우 8字(『正字通』)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는 武周가 20字 이상을 제정했다는 說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分期的으로 新字를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北京故宮博物院 施安昌은 數百件的 武周墓誌·經卷·文書 등 실물자료를 가지고 비교 연구한 바, 新字는 5차에 걸쳐 모두 改元을 단행한 해에 제정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施安昌, “從院藏拓本探討武則天造字”, 『龍龕道場銘』, 香港三味出版社, 1993). 新字의 제정이 가장 많았던 것은 제1차로서 女皇이 정식으로 황제에 오른 載初元年(689)인데, “天·地·日·月·星·年·正·君·臣·載·初·照” 등 모두 12字이다. 이후 정식으로 廢唐建周한 天授元年(690) 및 證聖元年(695)正月·同年四月과 聖歷元年(698) 등 4차에 걸쳐 “授·證·聖·國·人” 등 모두 5字를 제정했다. 그 가운데 聖歷元年에는 ‘月’字를 다시 고쳐서 제정을 했다. 앞뒤로 모두 17字를 제정했고, ‘月’字만이 두 번 제정된 것이다.⁸⁾

8)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4호)

위와 같은 17字의 制定 時期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 ① 載初元年(689) 正月 1日, 12字(天·地·日·月·星·年·君·臣·載·初·照) 制定
- ② 天授元年(690) 9月 9日, 1字(授) 制定
- ③ 證聖元年(695) 正月 1日, 2字(證·聖) 制定
- ④ 證聖元年(695) 4月 1日, 1字(國) 制定(天樞를 建立할 때임).
- ⑤ 聖歷元年(698) 正月 1日, 1字(人)制定, 1字(月) 改定

2) 武周新字의 使用時期

武周新字는 689년(재초원년) 정월 1일(庚辰) 제1차 12字의 사용을 시작으로¹⁰⁾ 705년(神龍元年) 2월 4일 폐지될 때까지¹¹⁾ 약 15年間이 正式적인 사용기간이 된다. 그리고 이후의 사용례는 모두 『中宗即位赦詔』를 철저히 따르지 않았거나, 고의로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혹 어떤 것은 常體字에 대한 축천문자 字體의 특이함에 매력을 느껴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¹²⁾

반면에 武周時期에 新字로 寫成된 佛經 등의 文獻이 후세에 傳來·轉寫되면서 그 新字들의 대부분은 常體字로 고쳐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新字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서 기술하겠지만 『高麗再雕大藏經』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 武周新字의 製字方法과 字形

武周新字의 製字方法은 혹 古字를 恢復하여 다시 사용하였고, 혹은 古體의 字形과 筆劃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字形의 組合에서는 대체로 六書 중의 會意 혹은 象形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地의 新字”는 『戰國策·魏一』과 『漢書·趙充國傳』 등 古籍 중에 이미 이 글자가 들어 있으니, 이것은 사실 古字를 恢復한 것이지 이 때에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다. 또 “天의 新字”같은 것은 본래 秦篆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初·載”의 新字는 篆書의 筆法 따위를 이용한 것이다.¹³⁾

原: 山西 古籍出版社, 1998, p.219.

李志賢, “標新立異 別有意圖”,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474.

9)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188.

10) 『新唐書』(『則天順聖皇后紀』) “則天順聖皇后武氏 諱墨 … 載初中 又享萬象神宮 … 作墨 … 十后自名墨 改詔書爲制”

11) 『中宗即位赦詔』(『唐代詔令集』卷2) “寔在于茲 業既惟新 事宜更始 可改大周爲唐 社稷宗廟陵寢郊祀禮樂 行運旗幟服色天地等字臺閣官名 一事已上 并依永淳以前故事 其新都依舊爲東都 北都依舊并州”

12)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23.

그리고 측천무후가 제정한 글자 중에서 “照·星·年·臣·人·君·載·初·證·聖·授” 등 11字는 政治 作用을 위해 제정한 것이고, “月·日” 2字는 神話 傳說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이며, “天·地·正(正의 新字는 사실 王字임)·國” 등 4字는 武后가 차용한 것인데(武后以前の 『玉篇』에 이미 있는 字임), 後人이 살피지 못하고 武后가 만든 것이라고 하니 잘못되었다.¹⁴⁾ 요컨대 武后 때의 改字는 모두 神話傳說·迷信·愚民을 含有하여 그 政治작용을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다.¹⁵⁾

“天·地·日·月·星·年·正·君·臣·載·初·照·授·證·聖·國·人”에 해당되는 17字의 新字¹⁶⁾에 대해서 구체적인 製字方法과 字形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① 天：秦篆에서 나온 것.
- ② 地：山·水·土의 조합으로, 古文에서 나온 것.
- ③ 日：○·乙의 조합으로, ○은 해를, 乙은 새를 상징.
- ④ 月(1차)：○·夕의 조합으로, ○은 둥근 달, 夕은 多數를 상징.
月(2차)：匚·出의 조합으로, ○은 新月, 出은 蟾蜍를 상징.
- ⑤ 星：○으로 별을 상징한 것.
- ⑥ 年：千·千·万·万의 조합.
- ⑦ 正：古文에서 나온 것.
- ⑧ 君：天·大·吉의 조합.
- ⑨ 臣：一·忠의 조합.
- ⑩ 載：土·人·車·灬의 조합으로, 篆書의 筆法을 이용한 것.
- ⑪ 初：天·明·人·土의 조합으로, 篆書의 筆法을 이용한 것.
- ⑫ 照：日·月·空의 조합.
- ⑬ 授：禾·久·天·王의 조합.
- ⑭ 證：永·主·人·王(또는 永·主·久·王)의 조합.
- ⑮ 聖：長·正·主의 조합.

13)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219.

14) 董作賓·王恒余, “唐武后改字考”, 『中央研究院語言研究所集刊』, 1963年 34期 p.474.

15) 李志賢, “標新立異 別有意圖”,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98.

16) 武周新字의 字形은 附錄의 <武周新字의 字形 一覽表>를 참조바람.

17) 董作賓·王恒余, “唐武后改字考”, 『中央研究院語言研究所集刊』, 1963年 34期, p.475.

施安昌, “從院藏拓本探討武則天造字”, 『龍龕道場銘』, 香港三味出版社, 1993).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219.

李志賢, “標新立異 別有意圖”,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474.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40-58.

⑯ 國：古文에서 나온 것.

⑰ 人：一·生の 조합.

다음은 武周新字의 字形¹⁸⁾에 관한 문제이다. 則天武后가 고친 17字 중에서 “星·天·地·國·人·臣·照” 등의 新字 7字는 典籍의 기록과 石刻 등의 자료에 모두 똑같이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10字는 비단 典籍간에 記載가 다를 뿐만 아니라, 武周의 많은 石刻과 비교했을 때에도 서로간에 차이가 있어 역대로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곤란하였다. 문헌에 보이는 武周新字는 別字·異體가 많다. 이것은 한편으로 당시 조건의 한계성으로 인해 대체로 전해들은 대로 轉寫하였기 때문에 以誤傳誤를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新字가 번잡하고 쓰기에 불편해서 단지 기본적으로 비슷하게만 쓸려고만 했지 꼭 정확히 틀림이 없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보이는 “地·初·授·證”의 武周新字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地’의 新字는 별반 문제점이 없다.

둘째, ‘證’字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에 의하면 “永主人王”의 組合으로서 天授永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風峪石經』²⁰⁾에서 고쳐 쓴 ‘證’字는 首卷 제2石의 題記 중에 “證義” 2字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두 中間이 ‘久’이고 ‘人’이 아니다. 證聖元年(695)의 『南郭生』, 萬歲通天二年(697)의 『趙睿』, 聖歷元年(698)의 『崔玄籍』 등의 墓誌는 모두 『風峪石經』과 똑같은 寫法이다. 顧炎武가 인용한 唐君臣의 『正論』에도 “永主久王爲證”으로(顧炎武, 『金石文字記』 卷2) 기술하고 있다.²¹⁾

셋째, ‘初’字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에 의하면 “天明人土”의 組合으로서 『詩·小雅·小明』의 “明明上天 照臨下土”의 뜻에 붙인 것이다. 何漢南 등도 이 說과 거의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何漢南, “武則天改制字考”, 『文博』 雜誌 1987年 第4期). 『風峪石經』중 이 글자의 寫法은 그 中間이 2개의 日이 并列해 있는 것으로 ‘明’이 아닌 ‘田’이다.²²⁾ 그 아래는 ‘八’과

18) 附錄의 <武周新字의 字形 一覽表>를 참조바람.

19)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西古籍出版社, 1998. p.221.

20) 『風峪石經』의 全稱은 『晉祠藏風峪華嚴石經』이고 『華嚴石經』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그 지역에서는 『風洞石經』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武周 때 漢譯된 80卷 『華嚴經』을 작은 楷書體로 완전하게 새긴 方柱形의 石刻群인데, 대부분 1미터 이상의 4面으로 된 刻石이다. 이 經을 새긴 것은 한역이 완료된 聖歷 3년부터 長安 4년(700-704) 사이인데, 頂面의 題記와 刻石中の 武周改字가 이를 증명한다. 唐太宗의 『晉祠銘碑』보다 약 반세기가 늦는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1,300년전의 初唐 石刻文物이다(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217).

21)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222.

22) 이러한 용례를 嵩山에서 출토된 『則天武后金簡』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璽’字를 보면 ‘明

비슷하다. 『千唐志齋藏志』에 수록된 墓誌 중에 보이는 ‘初’字의 改寫는 총 16篇·20字인데, 그 중 12篇·13字 모두가 『風峪石經』의 寫法과 근사하다. 『集韻』의 “‘田’, 許元切, 音暄, 明也”에 의거하면, ‘田’은 ‘明’과 뜻이 같다. 그러므로 ‘天’아래가 ‘田’인 것도 “明明上天 照臨下土”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²³⁾

넷째, ‘授’는 “禾·久·天·王”의 組合으로서 “天賜嘉禾” “久王天下”의 뜻에 붙인 것이다.²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에 보이는 武周新字는 別字·異體가 많다. 더욱이 『高麗再雕大藏經』 속에 散見되는 新字²⁵⁾는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뿐만 아니라 武周時期 이후에 변형된 것으로 추측되는 異體도 多數이고 그 字形은 실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조사하여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新字를 포함해서 一覽表를 작성하면 附錄의 <武周新字의 字形 一覽表>와 같다.

4) 武周新字의 使用例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字의 무주신자 가운데 “天·地·日·月·星·年·正·君·臣·載·初·照” 등의 新字 12字는 載初元年(689)부터 사용되었고, ‘授’의 新字는 天授元年(690), “證·聖”의 新字는 證聖元年(695)正月, ‘國’의 新字는 證聖元年(695) 五月, ‘人’의 新字와 2차로 改定된 ‘月’의 新字는 聖歷元年(698)부터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新字들이 武周時期에 모두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照’와 ‘君’의 新字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고, ‘聖’字도 간혹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간략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照의 新字 ‘照’는 武后 자신의 諱字로 삼아 武后가 자기의 署名에만 사용하던 글자로 사용례는 一例(2회 사용)²⁶⁾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武后에 의한 詔制類의 璽署에만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에는 일체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 있는 사용례가 극히 희소하게 된 것일 것이다.

이 ‘田’으로 되어 있다(施安昌, “從院藏拓本探尋武則天造字”, 「故宮博物院院刊」所收.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175에서 재인용).

23)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222.

24)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52.

25) 本稿에서 조사된 “『高麗再雕大藏經』 속에 散見되는 新字”는 高麗大藏經研究所(주소: 용산구 한남2동 683-139 ☎ 02-797-0585)에서 진산화한 『高麗再雕大藏經』(http://www.sutara.re.kr)에서 檢出한것이다. 그리고 新字가 사용된 佛經을 찾아 본 바 다음과 같이 검색되었다.

根本薩婆多部律攝, 御製蓮花心輪迴文偈頌, 佛說寶雨經, 大周刊定衆經目錄, 辯正論, 新集藏經音義五錄, 阿毗達摩品類足論, 古今譯經圖記, 貞元新定釋教目錄, 佛說佛名經, 南明泉和尚禪悉道歌事實, 一切經音義, 道宣律師感通錄, 十門辯惑論, 御製秘藏詮, 御製緣識, 禪門拈誦集,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華嚴經探玄記

26) 嵩山에서 출토된 『則天武后金簡』에 보인다(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173).

반면에 常體字 ‘照’는 當代의 용례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글자의 缺筆된 例도 산견된다.²⁷⁾ 예를 들면 武后 때의 寫經 2종에 똑같이 ‘照’字가 있는데(“如人有目 日光明照 見種種色”(『金剛般若波羅密經』), “照見五蘊皆空”(『般若婆羅密多心經』)), 그 ‘照’字 아래의 4點은 단지 모두 왼쪽의 2點만을 기재하고 있다(施安昌, “從院藏拓本探討武則天造字”, 『故宮博物院院刊』 所收).²⁸⁾

둘째, ‘君’의 新字는 人君의 뜻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문자로서 정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人君 이외의 ‘〇〇君’ · ‘君子’ 등의 경우는 常體字 ‘君’을 사용된 것이다.²⁹⁾

셋째, ‘聖’의 新字는 간혹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證聖元年乙未(695)에 세운 ‘小石橋碑’(『金石萃編』 所收) 중에는 ‘聖’과 ‘聖의 新字’가 2회씩 병용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미 ‘聖의 新字’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聖’字로 되어있는 것은 『金石萃編』의 誤刻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비문 중의 사용례를 상세히 검토하면 ‘聖의 新字’는 年號 表記의 경우에만 2회 모두 ‘聖의 新字’가 사용되었고, 다른 경우(‘聖迹’·‘聖賢’)에는 ‘聖’字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례를 미루어 볼 때, 이 시기 혹은 이 비문에서 新字의 사용은 年號字에만 국한되고 다른 경우에는 常體字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이상과 같이 제한적으로 사용된 新字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新字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89년(載初元年) 정월 1일부터 705년(神龍元年) 2월 4일 폐지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은 正式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 이후의 사용은 모두 『中宗即位赦詔』를 철저히 따르지 않았거나, 고의로 계속해서 사용한 것이며, 혹은 常體字에 대한 新字의 字形에 특이한 매력을 느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약 15년 동안의 正式 사용기간에 어느 정도로 新字의 사용이 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王鴻賓·胡春英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는데,³¹⁾ 즉 王鴻賓·胡春英은 新字의 사용이 신속하고 철저했던 것으로 언급하면서, 施安昌의 論及에 의거하여 일반 佛敎經卷·石刻 등에서는 武周新字를 사용하지 않은 特例도 있다고 하였다.

“...武周改字가 勅令으로 시행된 후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광범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窮村 僻地 및 서쪽 변방인 新疆에서 출토된 墓志, 남쪽으로는 멀리 廣東省 羅定縣의 ‘龍龕道場銘’ 石刻 등은 모두 武周改字를 사용하였다. 특히 書寫된 대량의 墓志에도 모두 사용된 것은 비단 群臣의 章奏 뿐만 아니라 천하의 書契가 이와 같았음을

27)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40.

28)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175.

29)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21.

30)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198.

31)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p.222.

설명해 주는 것이니, 비록 墓地나 地下에 안치되는 것이라도 또한 반드시 스스로 遵命하여 書寫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武周의 國力과 君威가 얼마나 雄厚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일반 佛敎經卷·石刻 등에서 武周改字를 사용하지 않은 特例도 있다(施安昌, “武周新字”國制定의時間”, 『龍龕道場銘』, 香港三昧出版社, 1993).”

반면에 千惠鳳 先生은 아래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³²⁾ 즉 武后의 治世라도 制字의 사용은 주로 官府文書, 要職官吏, 奉制譯僧들이 철저히 지켰고 그 밖의 계층은 적당히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들 制字도 淸의 王昶이 엮은 <金石萃編>과 <金石續編> 등에 나타나는 武后 治世 때의 墓地銘과 碑銘 등을 보면 모두 制字化되지 않고 바르게 쓰여진 글자가 혼용되고 있다(王昶(淸)撰, <金石萃編>은 拓本이 아니고 활자본을 影印한 것이므로 誤植도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한편 制字되지 않고 바르게 쓰여진 글자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官府文書 要職官吏 奉制譯僧이 아니고 그밖의 계층이 쓴 것이기 때문에 制字의 사용이 철저히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중 證聖元年乙未(695)에 세운 小石橋碑와 大足元年(701)에 세운 大雲寺碑를 보면 聖·授·照 등 바르게 쓰인 글자가 자주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制字이면서 異體字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일례로서 ‘月’의 글자를 들 수 있으며, 그 字形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武后의 治世라도 制字의 사용은 주로 官府文書, 要職官吏, 奉制譯僧들이 철저히 지켰고 그밖의 계층은 적당히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藏中進은 『千唐誌齋藏誌』·『金石萃編』 등에 수록된 武后 時期의 여러 자료와 敦煌에서 出土된 『大雲經疏』(S.2658), 嵩山에서 출토된 『則天武后金簡』 등등에 보이는 新字를 정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則天武后 治下의 載初(690)로부터 長安(704) 사이의 墓誌·寫本の 類는 僅少한 例外³³⁾를 제외하고는 실로 整然하게 그 文字가 사용되었다.”³⁴⁾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武周時期에 이루어진 文獻들은, 위에서 施安昌이 언급한 “武后改字를 사용하지 않은 特例”를 제외하면, 新字가 사용된 文獻에서의 新字 使用의 適用은 거의 100%이며, 혹자가 말하는 “混用”이 아니며 “그 밖의 계층은 적당히 사용했던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唐武周時期에 新字가 사용된 文獻이라면 그 新字의 사용은 거의 완벽하게 적용되었다는 결론을 導出해 내면서 本章에서

32) 千惠鳳, “新羅 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 問題”, 『書誌學研究』 18집(1999. 12), p.130.

33) 藏中進이 말하는 “僅少한 例外”라는 것은 ‘聖’과 ‘君’字의 使用例(이에 대해서는 本稿의 제II장 2절 4항을 참조 바람)와 『金石萃編』 자체에서 발생한 誤刻과 『大雲經疏』의 書寫者의 錯誤로 인해 新字가 아닌 常體字로 기재된 예를 의미한다(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197, 199, 203, 256 등 참조).

34)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p.321.

의 고찰을 마치고자 한다.

Ⅲ.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武周新字의 性格

本章에서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과 使用例를 조사하여, 前章에서 고찰한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 및 使用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性格을 살펴보고자 한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사용된 新字에 대해서는 일찍이 李弘植 先生의 論及이 있었고,³⁵⁾ 使用例에 대해서는 千惠鳳 先生의 調査가 있었다.³⁶⁾ 즉 李弘植 先生은 本經에 사용된 4字(地·初·證·授字의 新字)에 대해서 ‘地·授의 新字’ 2字는 金石文 중에 많이 나오며 字樣에도 別問題가 없는 것으로, ‘初의 新字’는 金石文上에 나타나는 例가 드물고 또 字樣도 不確實한 것으로, ‘證의 新字’는 그 字形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이 일반적인 新字의 字形과 차이가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 하겠다. 그리고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使用례에 대해서 錢혜봉 선생의 조사에 따르면, 本經에 나오는 新字에 해당되는 글자는 12種 110字인데³⁷⁾ 常體字로 사용된 것은 ‘人’ 31字 ‘天’ 26字 ‘日’ 13字 ‘國’ 4字 ‘月’ 3字 ‘正’ 3字 ‘年’ 1字 등 도합 7種 81字이다. 그리고 新字로 새겨진 것은 4種 10字인데 ‘地’는 21字 중에서 4字, ‘授’는 5字 중에서 4字, ‘證’ 1字, ‘初’ 1字이다.

이제 먼저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을 前章에서 살펴본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과 비교를 해보면, ‘地’의 新字는 別문제 없지만 “初·證·授”字의 新字들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新字의 組合原理와 意味上에서 비교해 보면 더욱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初·證’字의 新字 2字는 原來의 新字와는 다른 文字로 인식해도 될 정도이다. 단 ‘授’字의 新字는 이와 똑같은 字形을 『高麗再雕大藏經』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 異體로 생각할 수 있겠다(물론 武周時期에 형성된 異體가 아니라 뒤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³⁸⁾

다음으로 新字使用의 적용례를 비교해 보면 역시 비교가 안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本

35)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제4호(1968. 5), p.183-187.

36) 千惠鳳, “新羅 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 問題”, 『書誌學研究』 18집(1999. 12), p.131.

37) 錢혜봉 선생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91년에 발행된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影印本이다(惠千惠鳳, “新羅 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 問題”, 『書誌學研究』 18집(1999. 12), p.131.

38) 附錄의 <武周新字의 字形 一覽表>를 참조바람.

經에 사용된 新字使用의 適用率을 위에서 언급한 천혜봉 선생의 조사자료에 의거해 算定해 보면 9%에 불과하지만, 前章에서 살펴본 武周時期 新字使用의 적용률을 산정해 보면 거의 100%에 가깝다. 즉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과 新字使用의 適用率은 武周時期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형과 사용례에서 극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本經에 사용된 新字와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 사이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성격을 바탕으로 本經의 간행시기와 간행지를 추측해 보면, 자연히 唐의 武周時期가 끝난 이후 他地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³⁹⁾ 만약에 혹자의 주장처럼 本經이 武周時期 唐에서 간행되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 있겠는가! 결국 本經은 唐의 武周時期가 끝난 이후 다른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V. 結 言

1966년 慶州 佛國寺 釋迦塔에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經의 刊年과 刊行地에 대해서 先學들의 연구가 진행된 바, 대략 751년경 신라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 定說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704년 중국의 洛陽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과 706년 이전 신라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經에 나타나는 이른바 武周新字이다. 무주신자는 唐의 則天武后가 執權했을 때 제정된 17字의 文字로 측천무후 집권기간 중 689년부터 704년까지 15년 동안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무주신자가 本經에는 이 17字 가운데 4字(地·初·證·授字에 해당되는 무주신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時限性을 가진 무주신자가 本經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학자들간에 本經이 751년경 혹은 706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주장하거나, 704년 중국의 洛陽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論據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무주신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고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39) 이러한 주장은 이미 천혜봉 선생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선생은 “이 經이 武后의 信任을 가장 돈독하게 받고 있는 法藏과 彌陀山이 奉制譯한 것이므로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듯이 702년 洛陽에서 刊行된 것을 가져다 넣은 것이라면 마땅히 충실하게 制字(筆者註: 武周新字)로 새겨져야 하지 않겠는가”하면서 本經의 唐刊本の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千惠鳳, “新羅 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 問題”, 『書誌學研究』 18집(1999. 12), p.131).

때문에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臆見으로 생각되는 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먼저 무주신자와 이를 제정한 측천무후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武后時代에 적용된 무주신자의 用例를 고찰하고, 이것을 本經에 사용된 例와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을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의 자형과 비교를 해본 결과, ‘地’의 新字는 거의 같은 형태이고, “初·證·授”字의 新字들은 상당한 차이가 났다. 또한 新字의 組合原理와 意味上에서 비교해 본 결과 더욱 차이가 있었다. 특히 ‘初’·‘證’字의 新字 2字는 原來의 新字와는 다른 文字로 인식해도 될 정도이었다.

다음으로 新字使用의 적용례를 비교해 본 결과 역시 비교가 안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本經에 사용된 新字使用의 適用率은 불과 9%에 지나지 않았지만, 武周時期 新字使用의 적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었다. 즉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字形과 新字使用의 適用率은 武周時期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本經에 사용된 新字와 武周時期에 사용된 新字 사이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 이와 같이 자형과 사용례에서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울러 本經에 사용된 新字의 성격을 바탕으로 本經의 간행시기와 간행지를 추측해 본 바, 본경은 唐의 武周時期가 끝난 이후 他地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本經에 사용된 무주신자의 성격은 本經의 간행시기를 구명하는데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4輯(書誌學會, 1997).
- 羅元貞, “武則天歷史簡表”, 『武則天集』.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7.
- 董作賓·王恒余, “唐武后改字考”, 『中央研究院語言研究所集刊』, 1963年 34期.
- 潘吉星, “韓國新發現의 印本陀羅尼經與中國武周時的雕版印刷物”, 『中國印刷史學術研討會文集』 (印刷工業出版社, 1996).
- 王鴻賓·胡春英, “關於《風峪石經》中的武周改字和武則天時期的佛典翻譯”,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研究”, 東方學志 第106집(1999. 12).
- 李志賢, “標新立異 別有意圖”, 『武則天研究論文集』.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8.
-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第4호(1968.5).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千惠鳳, “新羅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 問題”, 『書誌學研究』 18집(1992).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汎友社, 1990).